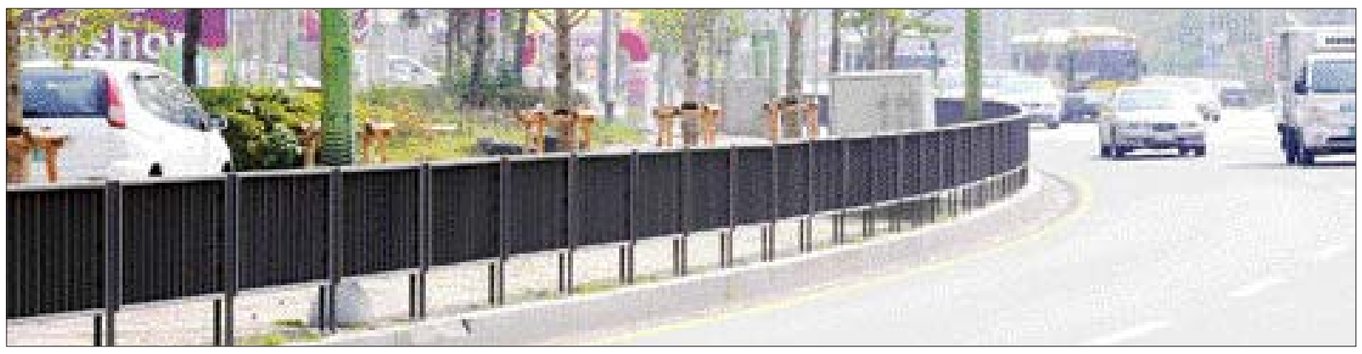


2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마재우체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의 한쪽 인도에 설치된 길이 350m, 높이 1.2m 의 안전펜스. 인근 상인들은 이 펜스가 고객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도에 안전펜스 '상권 침해' 논란

"무단횡단 사고 다발" … 광주 풍암동 마재우체국 앞 350m 설치

"고객 접근 막아 … 차라리 중앙분리대 설치" 상인들 철거 요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상가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고객들의 접근을 막는 사실상의 '영업 방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구 풍암동 마재 우체국 인근 왕복 8차선(도로 폭 25m) 도로의 한쪽 인도에 길이 350m, 높이 1.2m의 알루미늄 스틸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이 안전펜스는 무단횡단 차단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됐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2007년 광주 주요 도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 곳에서만 모두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의 하나로 교통사고가 잦은 광주 도심 주요 도로에 안전펜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구간 주변의 50여 개 점포 업주들은 안전펜스가 사실상 고객들의 접근을 막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상가 앞 인도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고객들은 100여m 이상 떨어진 상가 뒤편으로 우회,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어 이용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대에는 음식점과 술집, 카센터, 학원 등 상가가 밀집돼 있으며,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인접(직선거리 약 300m)해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다.

특히 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이유로 중앙분리대가 아닌 한쪽 인도에만 안전펜스를 설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왜 하필 우리 쪽 상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영업에 지장을 주느냐. 당장 철거해 달라"며 "누가 영업손실을 보존해 줄 것이냐.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라리 안전펜스 대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1.5m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차선 분리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항상 주민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고민도 해봤는데,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일대 상가 주인 5명은 광주시에 "영업방해를 초래하는 안전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4 대 1 조선대 3.7 대 1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남대와 조선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2010학년도 수시모집 마감 결과 각각 4대 1과,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대는 31명 모집에 124명이 지원했으며 일반전형은 18명에 76명(4.2대1), 지역출신고 특별전형은 13명에 48명(3.7대1)의 응시했다.

조선대는 60명 모집에 모두 219명이 지원, 3.7대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2대 1보다 다소 높아졌다. 일반전형은 40명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3.7대 1을, 특별전형은 20명 모집에 71명(3.6대1)이 지원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 학부 성적, 심층면접 등을 거쳐 전남대는 9월 29일, 조선대는 10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모집은 10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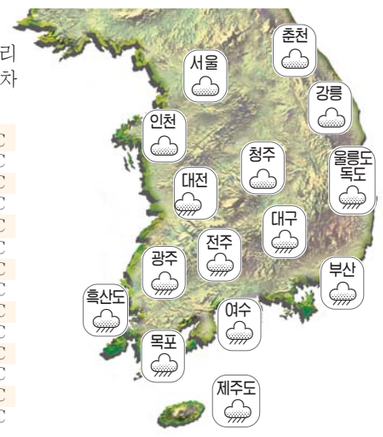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50분 / 달뜸 04시 09분 달짐 19시 31분

추적추적 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3/27℃
목 포	흐리고 비	22/25℃
여 수	흐리고 비	21/23℃
완 도	흐리고 비	20/24℃
구 례	흐리고 비	22/26℃
해 남	흐리고 비	21/25℃
장 흥	흐리고 비	20/25℃
고 흥	흐리고 비	21/24℃
순 천	흐리고 비	21/24℃
영 광	흐리고 비	21/26℃
진 도	흐리고 비	20/24℃
전 주	흐리고 비	21/28℃
남 원	흐리고 비	21/28℃
흑산도	흐리고 비	19/22℃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서	1.0~1.5m	목포	01:31	06:57
먼바다	남서~북서	1.0~2.0m		13:27	18: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여수	08:21	09:27
먼바다	남서~북서	1.0~2.0m		21:09	14: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 씨						
최저/최고	18/30	19/31	20/32	20/32	21/31	22/31

전남 '먹는 샘물' 4곳 모두 안전

전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먹는 샘물'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을 수거해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7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미소음료(주)와 신도음료(주), (주)회천, (주)토림 등 4개 업체의 생수에서는 브롬산염 등 이상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된 '먹는 샘물'의 경우 인체에 유익한 게르마늄, 불소 등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청정한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와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샘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먹는 샘물'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대학 '유학생 돈벌이' 제재

관리 부실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양산

교과부 22개 대학 적발

대학들의 관리 부실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이나 불법 취업, 심지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죄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전국 345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25개 대학의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2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개 대학의 유학생 이탈률(제적 등 중도탈락 비율. 지난 해 12월 기준)은 75~94%에 달했다.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기준 미달자의 입학 허가(13개 대학), 수업료 1년치 선수납(10개), 형식적 한국어능력검증(14개), 출석·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및 한국어학점 과다 인정(16개) 등 관리부실 유형도 다양했다.

이 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은 대학들이 유학생을 재정충당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노력이나 지원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법령도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한다. 제재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은 그 정도에 따라 사증(VISA) 발급을 제한하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1단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단계 제재 후에도 개선조치가 미흡할 때는 교과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선정시 배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등에 학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한국병원 '우수'

복지부, 종합병원 평가

전국의 대형 종합병원 가운데 목포한국병원과 가톨릭의대 바오로병원 등 11곳이 의료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01~499병상을 갖춘 대형 76곳과 260~400개 병상의 중소형 37곳 등 종합병원 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등 초대형 종합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빠졌다.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15개 부문에 걸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A)을 받은 의료기관은 목포한국병원과 성바오로병원, 경찰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등이다. 중소형병원에서는 제일병원과 대구보훈병원 2곳이 뽑혔다. /연합뉴스

서울대 신입생 학과별 모집 추진

2011학년도부터 … 대학가 파장 클 듯

현재 학부별·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서울대의 주요 단과대학들이 일제히 학과별 모집을 추진,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금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선발부터 학과별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사회과학·자연과학·공과·농업생명과학·사범·생활과학대학 등 6개 단과대학이 신입생 선발 전형방식을 학과별 모집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잇따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금주 내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인문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모집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계열별·학부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던 서울대 주요 단과대학 모두가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단과대별로 보면 사회대는 인류·지리학과군과 정치·외교학과군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개별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자연대는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을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로, 사범대는 외국어교육계열 등으로 2개씩 묶인 모집단위를 학과별로 분리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공대는 공학계열과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을 모두 해체해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기계항공학부를 기계학과와 항공우주공학부로 나눌 계획이다.

생활과학대는 소비자아동학부와 의류·식품영양학과군을 4개 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이런 단과대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형방식 변경의 구체적 방향, 범위, 시행시기 등을 대학본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